

## 진행성 하인두암에서 선행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효 정\* · 김 광 현

**목 적** : 진행성 하인두암 환자에서 최근 선행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으로 distant metastasis를 줄일 수 있으며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치료에서 부분관해를 보인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를 추가하여도 완전관해를 얻는 경우가 적고, 구제수술후 성적이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다.

**방 법** : 1987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행성 하인두암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방사선 촬영결과를 분석하였다. AJCC(1997)의 분류에 의거하여 3기와 4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적관찰 기간은 2개월에서 104개월이었고 평균 45개월이었다. 102례중 선행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군(CR group)은 57례였고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군(SR group)은 22례, 초치료로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경우는 13례였다.

**결 과** : 선행화학요법치료후 완전관해율은 33%였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의 완전관해율은 74%였다. 선행화학요법치료와 방사선치료후 완전관해를 얻은 뒤 재발한 경우는 23례로 그중 11례에서 구제수술을 시행하였고 4례에서 무병생존중이다. 완전관해를 얻지 못한 15명의 환자중 2례에서 구제수술을 시행하였고 모두 무병생존중이다. CR group 환자중 19%가 치료 종결후 5년까지 재발없이 후두를 보존할 수 있었다. 완전관해후 원격전이의 양상을 살펴보면, CR group에서는 전체재발환자의 13%를 차지하였고, SR group에서는 전체 재발환자중 24%가 원격전이로 발견되었다. 5년 무병생존율은 CR group에서 62.8%, SR group에서 57.8%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선행화학요법의 치료율을 증가시키는 더 좋은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고, 치료실패시나 재발시의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